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8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목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518(선한 사람 아흔 아홉)
2. 목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루카 15,1-7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2005년 북가주지역 친선 배구대회 협조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미사(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441(주의 나라 임하면)

## MEMO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7.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저는 성체성사와 사제직이 세워진 날인 성목요일에 해마다 세계의 모든 사제에게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교황 재위 25년째인 올해 저는 온 교회가 **“은총이며 신비”**인 성체성사와 사제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한 방법으로 이러한 성체성사를 더욱 완전하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묵주기도의 해를 선포함으로써 저는 저의 교황 재위 25주년을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호 아래에서 지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성목요일에 **‘성체성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멈추어 서서, 교회를 향하여 성체성사의 중심성을 새롭고 힘차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에서 그 생명을 이끌어 냅니다. 교회는 이 **‘살아 있는 빵’**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어찌 재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 성체성사를 생각할 때, 또 사제와 주교로서,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낸 삶을 되돌아볼 때, 저는 자연스레 제가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었던 여러 기회와 장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당 사목을 맡은 니에고비치의 성당, 크라쿠프의 성 플로리아노 대성당, 바벨 주교좌 성당, 성 베드로 대성전을 비롯한 로마와 세계 곳곳의 여러 대성전과 성당들이 기억납니다. 산길, 호숫가, 바닷가 등에 지어진 경당에서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장과 도시의 광장에 세운 제대에서도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거행한 성찬례를 통하여 저는 성체성사의 보편적인 특성, 다시 말해 우주적인 특성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주적입니다! 성찬례는 시골 성당의 초라한 제대에서 거행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그 속에 충만히 스며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단 한 번의 숭고한 찬양 행위로,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께 되돌려 드리하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성혈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그리하여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사제직을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성취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손에서 비롯된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아 하느님께 되돌려집니다.

## 주제 :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 (루가 15, 1-7)

예수님의 비유는 그 자체로 질문이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답변을 주어야 한다. 만일 목자의 입장이라면 양 백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는가?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광야에 버려두고 떠났다. 그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다. 비록 한 마리지만 비록 아주 미소한 부분이지만 완전함과 충만함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면 찾을 때까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목자의 태도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한 마리를 위해서 아흔아홉 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무릅쓸 수 있는가? 그 한 마리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 한 마리가 다른 양들보다 더 중요한 몫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지도급에 속하는 양일까? 그 한 마리를 잃으면 다른 양들도 덩달아 잃을 수 있어서일까? 하지만 왜 그 한 마리가 그토록 중요한가?

다른 아흔아홉 마리는 비록 광야에 버려두었다지만 아마도 울타리 안에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아통제를 잘하는 양들이었을 것이다. 이른바 규칙 안에서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들이었을 것이다. 이 의로운 양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양들이었을 것이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용서를 청할 죄도 없는 이들, 이것이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의 문제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돌아올 기쁨이 더 큰 법이다. 공동체를 떠나 있어 봐야, 길에서 벗어났을 때야 돌아올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오히려 회개가 더 빠르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떠나 있을 때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된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로서 돌아올 필요성이 있는 회개한 죄인들인 것이다. 혹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 아흔아홉 마리에 우리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칭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들인 셈이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들이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이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다. 회의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우리는 심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실로 좋지 않은 표양이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떠나기를 바라거나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렇듯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주 굳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흔아홉 의인들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강조하신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다니며 결국 찾아냈을 때 목자는 삶이 활짝 열리는 기쁨의 체험을 하게 된다.

찾아 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에 넘치는 발걸음을 옮기는 목자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 <나눔>

- ① 잃었던 양 한 마리처럼 방황하고 멀리 떠나 있었던 체험이 있는가?
- ② 생명을 걸 만큼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는가? (목자처럼)



《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좋은 글 중에서]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빵을 때렸습니다.  
빵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빵을 때렸다."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빵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빵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 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